



# 미국 은행들의 신용카드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상 현황

최근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연준리의 적극적인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신용카드 이용자들은 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상승추세에 직면하고 있음. 고객들의 부담 가중 배경으로는 대손상각 증가, 예금보험료 인상, 인수합병에 따른 가격산정체계 변화, 유동화 전개를 통한 과도한 위험전가 등이 지적되고 있음.

- 최근 미국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연준리(FRB)의 기준금리 인하기조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대출금리 및 수수료 상승 부담에 직면해 있음.
  - 이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도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, 신용카드 발행회사들이 급증하고 있는 대손상각 발생액을 기존 고객 전체를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는 데 기인함.
  - 이에 따라 최근 수개월간 신용평점이 낮은 고객은 물론 신용이력이 건전한 고객들까지도 신용카드 계좌유지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.
  - 연준리는 은행간시장의 기준대출금리인 연방자금금리(Federal Fund Rate)를 지난해 7월 5.25%를 정점으로 하여 10월 29일 현재 1.00%까지 인하함.
- 신용카드 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인상은 대형 신용카드 발행회사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.
  - J.P. Morgan Chase는 신용한도 초과 대출금리, 연체금리, 현금서비스 및 당좌대월 적용금리 등을 인상함.
  - 또한 최소 2년간 일정수준 이상의 신용잔액을 유지하고자 하는 신용카드 보유자에 대

〈표〉 미국 신용카드 발행회사들의 금리 및 각종 수수료 인상 현황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상 실태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American Express            | • 통상금리 및 현금서비스, 연체 적용금리 인상<br>• 외환거래수수료 인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Bank of America             | • 초기신용한도 인하 및 1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 폐기<br>• 정기적인 신용평가를 통한 적용금리 변경               |
| Capital One                 | • 연체자에 대한 월간 최저상환액 인상   |
| J.P. Morgan Chase           | • 당좌대월, 현금서비스, 연체 금리 인상<br>• 신용잔액 일정수준 이상 고객에 대한 추가 월간 수수료 부과 및 월간 최저상환액 인상 |
| Citigroup                   | • 일정 고객에 대한 통상금리 인상   |
| Discover Financial Services | • 잔액이체수수료(balance-transfer fee) 상한 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

해 매달 10달러의 신규수수료를 부과하고, 신용잔액에 대한 월간 최저상환액을 인상함(2% → 5%).

- Citigroup과 American Express는 2~3년간 금리변동이 없었던 카드고객들을 대상으로 적용금리를 2~3%p 인상할 것이라고 통지하였으며, 특히 후자의 경우 현금서비스 및 연체 금리 인상과 함께 개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환전수수료도 인상할 방침임.

■ 은행들의 금리 및 수수료 인상 배경으로는 대손상각 증가 외에 예금보험료 인상, 인수합병에 따른 가격산정체계 변화, 유동화(securitization) 전개를 통한 과도한 위험전가 등이 지적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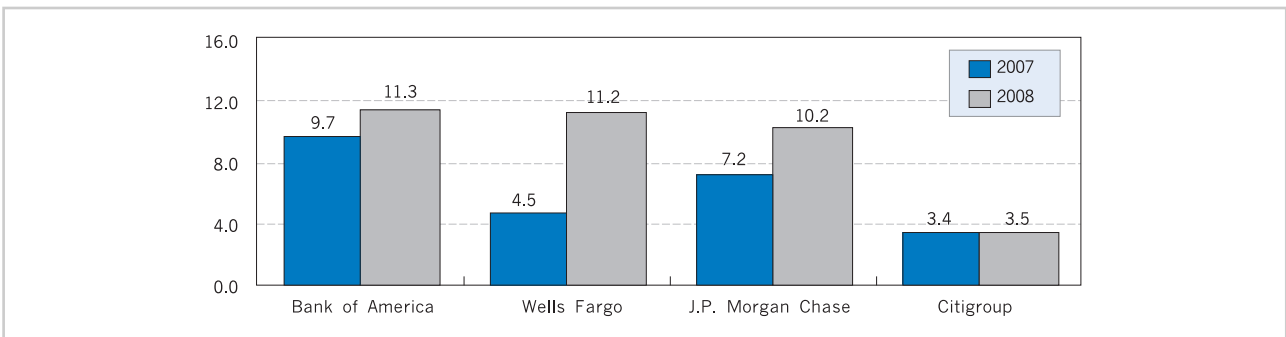
- 연방예금보험공사(FDIC)의 보험기금 확충계획에 따라 내년 1/4분기부터 약 90%의 산하 은행(리스크등급 I)에 대해 적용되는 예금보험료가 현행 100달러당 5센트(최소)~7센트(최대)에서 12센트~14센트로 인상됨(〈주간금융브리프(제17권 40호)〉 참조).
- 인수합병을 통한 산업재편 진전으로 대형은행들의 가격결정력이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스톱-풀뱅크를 지향하는 종합금융서비스의 특성상 가격산정체계가 날로 복잡해지고 있음.
- 신용카드대출채권 유동화의 경우 적용금리 및 수수료수입 증대를 위해 인수기준을 과도하게 낮출 경우 대출채권 자체는 물론 신용카드채권담보증권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음.

■ 은행들은 재무구조 건전화로 인해 상기와 같이 벌칙성 수수료 내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아 예금금리 인상 등을 통해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.

- 이에 따라 중소형 은행들의 경우 예금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고, 대형은행들도 예대마진 축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.

〈그림〉 미국 대형은행들의 소매예금 비중 추이 (올해 6월말 기준)

(단위 : %)



■ 향후 미국 은행들은 실물경기 및 자금수요 등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최적의 자금조달·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익개선 및 재무구조 건전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됨. **KIF**